

'어머니'에서 출발, '나를 찾는 작업으로 여성미술가 윤석남

여성이라는 말은 단순한 생물학적 구분을 넘어선다.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과 사유 체계의 방식으로 확대되는 개념.

어머니로 대표되는 '모성성' 또한 시각에 따라 그 의미해기 작업은 달라진다.

윤석남 씨의 '어머니' 작업은 지극히 희생적인 어머니의 현실을 고발하는데 머물지 않는다.

어머니가 지닌 그 엄청난 힘을 사회적 힘으로 변용시키고 싶었던 것. 우리 화단에 여성미술의 바람을 몰고왔던 윤석남 씨의 어머니 작업은 이제 '나의 자리' 찾기 작업으로 이어졌다. 여성의 욕망과 억압된 자아...



어머니: 딸과 아들(부분)/ 나무 위에 아크릴, 파스텔/1992.

“우리 어머니들의 삶은 지극히 희생적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생물적인 삶이지요. 내겐 정말 끔찍하게 보였어요. 그렇지만 어머니에게는 한 생명을 창조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우주 창조로까지 이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 큰 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혼탁한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대안으로 그 힘을 변용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10년 이상 '어머니 작업'에 매달려온 윤석남 씨. 1993년 두 번째 개인전 '어머니의 눈'은 윤석남 씨의 '어머니'가 여성미술의 주요 흐름과

맞물리며 우리와 만난 획기적인 전시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윤석남 씨의 작업에서 어머니의 고통만을 읽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어머니의 고달픈 삶을 고발하는 것으로만.

윤석남 씨가 공식적으로 작가활동을 시작한 건 1982년, 처음으로 가진 개인전 (윤석남전) 이후부터다. 그림을 시작한 건 2년 전인 1980년, 사십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그 늦은 출발이 그 해 4월 25일이라고 그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남편의 월급 봉투를 받아들자마자 강습비를 내리 달려갔으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 이미 국제 청소년 미술 콘테스트 등에서 상을 받으면서 그림 실력을 인정받은 윤석남 씨. 그러나 영화감독이었던 아버지가 영화로 돈을 날리자 그림은 돈이 들 것 같아 포기하고 문학쪽으로 방향을 돌렸던 사춘기 시절. 그리고 그림과는 무관한 전공을 선택한 대학시절. 그러다 만난 한 남자와 6년간의 열애 끝에 아내의 자리로 들어선 20대와 어머니가 된 30대. 그러나 그 자리에 안주해 있기엔 존재에 대한 갈등과 타고난 끼가 너무나 강했다.

“남편이나 아이를 통한 대리만족이 아니라 스스로 얻는 만족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무의식 세계에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항상 내재해 있어요. 자기 성취감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스물 두살 때 만난 남자 때문에, 사랑이 뭔지, 가정에 정착했지요. 그때는 일과 결혼을 양립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첫 번째 개인전 (윤석남전)은 화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화가들과 알기 시작하면서 윤석남 씨의 움직임은 활발해졌다. 화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학력이 필요하다는 남편의 권유로 1년 후 뉴욕으로 떠났다. 그리고 프래트 인스티튜트 그래픽 센터와 아트 스튜디오 리그에서 각각 1년씩 프린팅과 에칭을 연마했다.

한국 화단에 돌아온 윤석남 씨에게는 중요한 만남들이 속속 이어졌다. 화단에서 여성미술의 주요 흐름을 잡아가게 될 김인순, 김진숙 씨 등과의 만남이 그 하나였다. 페미니즘 미술에 대한 세 사람의 작업 방향은 '시월 모임' 결성으로 이어졌고, 1985년 관훈미술관에서는 여성 기획전이 열렸다. 윤석남 씨의 그림 주제

윤석남 씨

- 1939년 민주생
- 1982년 제1회 개인전 (윤석남전)
- 1986 - 1992년 단체전 (반에서 하나로) (여성과 현실전) <여성해방 시와 그림의 만남전> 등
- 1993년 제2회 개인전 (어머니의 눈)
- 1995년 <한국 현대회화전>(북경)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특별전>
- 작업실(Tel: 535-6878)



작업실 한 모퉁이를 지키고 있는 윤석남 씨의 작품들



는 역시 '어머니'였다.

그 전시를 계기로 2년 후에는 민중미술협회 여성미술분과에 합류했다. 화단이나 학계에서 여성미술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차원에서 자리를 잡은 해였다. '반에서 하나로', '여성과 현실전', '여성해방 시와 그림의 만남전' 등의 페미니즘 기획전에 참여하면서 윤석남 씨는 페미니즘 작가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당시 페미니즘 작가들의 작업 태도는 너무(?) 강경했다.

"민미협 작가들은 너무 메시지만 추구했어요. 미술의 형식은 무시했지요. 작업하는 데서 쾌감을 느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다시 뉴욕으로 간 윤석남 씨는 사진 수업과 여행을 하면서 공식적인 작가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다시 서울에 돌아와서도 작업은 계속했지만, 공식적인 활동은 없었다.

그러다 1993년, 4년간의 공백기를 깨고 금호미술관에서 선보인 게 바로 '어머니의 눈' 전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세상을 배운다. 남편이나 아이들에게서 존재 이유를 찾는 우리 어머니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그러나 그 대안을 채 찾기도 전에 우리 역시 어머니가 된다. 그러나 어머니이기 이전에, 아니 어머니가 된 후에도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

머니 작업에서 출발한 윤석남 씨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얘기로 작업 방향을 돌린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나를 찾는 작업입니다. 나의 방을 통해서, 나의 방이란 바로 내가 존재하는



1. 낮과 밤/나무 위에 채색 혼합 매체/1995.
2. 나무에 이크림을 칠해 만든 작품들.

상황, 무의식의 세계예요. 나의 모습을, 특히나 부정적인 모습을 파고들다 보면 여성의 욕망이나 고민에 대한 대안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내재되어 있는 여성의 욕망, 그러나 억압된 그것에 윤석남 씨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여성의 성적인 욕망이다.

"여성의 섹스는 방기되어 있어요. 여성도 당당하게 섹스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성의 성을 억압하는 결혼제도에 반발심이 강해요. 섹스는 우리 삶의 원동력인데, 그게 억압된 상태에서 어떤 창조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그녀를 급진적 페미니스트로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작업 속의 여자들에게선 성적인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결혼제도 안에서 이 땅의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온 생활이 급진적인 이론과는 무관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네 어머니들이 성과는 유리된 채 살았기 때문?

"작업에서 성적인 냄새가 나오지 않는 게 나도 이상해요. 드라이한 작품들이죠. 아직 여성에게 동물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억압된 여성의 욕망을 풀어헤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성화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 여성의 욕망은 이중적인가 봐요."

그러나 그녀에게도 변화는 있었다. 작년부터 시도하고 있는 '의자 시리즈'에서 성이 조금씩 표현되기 시작했다. 의자에 꽃혀있는 못에서 성적인 걸 읽어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의자 시리즈'는 여성의 자리를 표현한 작품이다. 낡은 의자를 채색하고 못을 박으면서, 여성의 상황, 여성의 몸을 나타내는 '여성화된 의자'.

낭만적으로 시작했지만 그림은 정말 피를 깎는 작업이란다. 자신의 작업이 모두 쓰레기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렇다고 윤석남 씨가 자신의 작업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다. 여성운동과 여성미술의 흐름에서 그녀의 작업은 무시할 수 없다.

"우리 화단에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에서 의미를 찾지요. 페미니스트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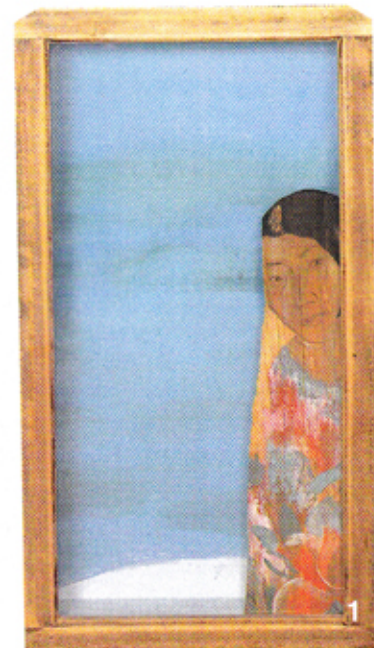
가가 여성운동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아요. 순수미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광고나 사진에 비해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과급 효과가 적다 해도, '또 하나의 문화' 등 여성 단체와 연결된 윤석남 씨의 페미니즘 작업이 여성 운동과 맞물리면서 여성들의 인식 변화에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사실이다.

"여성운동도 이젠 남녀의 진정한 화합을 통한 유토피아 건설쪽으로 시선이 옮겨졌어요. 평등 부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그리고 요즘 젊은 여성들을 보면 희망적이에요. 근본적인 의식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엽적으로는 많이 변했거든요. 자아가 확실해졌어요. 결혼에 대한 주관도 뚜렷하죠."

작품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살아야지', '아, 나는 이름답구나' 하는 감동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소박한 희망을 갖고 작업한다는 윤석남 씨. 작년에는 북경 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현대회화전>과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특별전>에 초청받았다.

1월 현대 미술관의 <호랑이 꼬리전>을 시작으로 윤석남 씨는 무척 바쁜 한 해를 보내야 한다. 2월과 3월에는 일본 가마구라 화랑에서, 3월과 4월에는 부산 조현화랑에서 개인전이 열린다. 9월부터 호주, 뉴욕, 동경에서 기획되는 단체전 준비도 차질없이 해야 한다.



1. 자화상/혼합 매체/1995.
2. 내 친구들/나무 위에 채색/1993.
3. 안방 이야기(부분)/혼합 매체/1995.

